

개성·동조 추구자의 디자인 선호도와 자아실현과의 상관성 연구

姜京子*·林志英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진주산업대학교 섬유공예학과 강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Actualization and Preference in Clothing Design of Individualist and Conformist

Kyung-Ja Kang* and Ji-Young Lim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Dept. of Fiber Crafts, Chin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female college students having high interest in fashion were selected by homogeneous purposive sampling. The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301 Students living in Chinju were asked on self-actualization and design preference. The data of respondents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line preference, chroma, thickness and weight of clothing textile were different in these two groups.
2. The students of individuality had self-actualization, feeling reactivity, self-regard, existentiality and capacity of intimate contact.
3.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self-actualization and the preference for clothing form, color and texture in two groups.

Key words : individual, conformist, preference in clothing design, self-actualization.

I. 서론

인간은 의복을 통해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소속집단의 사람들과 유사한 행동을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 이는 의복에서의 개성과 동조성에 대한 욕구가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인간본성의 양면성은 의복에서 가장 잘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 가지 욕구를 모두 갖고 있지만 어느 쪽의 욕구

가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의복에서의 표현은 다를 수 있다.

Cruchfield¹⁾는 개성주의자와 동조주의자들의 personality와 행동성향은 상반된 성향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자아실현과 의복 선택행동을 연구한 선행연구²⁾에서도 개성주의자와 동조주의자는 의복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려는 성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동질적인 성향을 가진 여대생들의 의복에서 선호하는 디자인은 자아실현의 표현이 되며 그

1) Cruchfield, R., *Independent Thought in a Conformist World*, in Farber and Wilson (eds), *Conflict and Creativity*, McGraw-Hill Book Co., New York, 1963, 225, 1963.

2) 강경자, 성인여성의 자아실현도가 의복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7 (3), 1-11, 1989.

들간에는 개인차가 있는가? Maslow³⁾는 자아실현의 의미란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이며 개인의 잠재력에 따라 다르다고 하여 자아실현의 의미는 개인마다 다를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대생이라는 비교적 동질성이 높은 집단 안에도 개성과 동조성향이 강한 집단이 각각 존재할 수 있고 이들의 내적 특성이나 자아실현의 정도가 의복디자인의 요소를 통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집단의 의복디자인 즉 형태, 색상, 질감 등의 제요소가 자기성취의 표현이 될 수 있고 그 실현의 의미는 집단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패션에 관심이 높은 여대생 특히 패션을 유발시키는 주요 집단인 개성 및 동조집단의 의복을 통해 선호하는 디자인이 자아실현의 표현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이 동질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들 속에는 개성주의자와 동조주의자가 공존할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반된 행동을 하는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두 집단의 자아실현 및 디자인 선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이들이 선호하는 의복디자인과 자아실현간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서 두 집단이 선호하는 의복디자인에 그들의 자아실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여대생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시키고 나아가 의류제조업자들의 시장 전략에서 시장세분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개성·동조 두 집단의 의복디자인선호도를 비교한다.
2. 개성·동조 두 집단의 자아실현 정도를 비교한다.
3. 개성·동조 두 집단의 의복디자인선호도와 자아실현과의 관련성을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실현

3) Maslow, A.H.,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Row Publishers., 1970.

4) 이상노, 이관용, 성격의 이론,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266-270, 1985.

5) Rogers, C.R., *Client 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51.

6)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349- 376, 1974.

개인은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잠재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취를 추구하려고 한다. Maslow³⁾도 개인이 가진 독특한 심리적 특성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 자아실현이라고 전제하고 인간의 내부에는 고유하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과 재능을 실현시키려고 하며 이러한 경향은 그 자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려는 욕구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분류하고 계층적 단계로 배열된다고 하였다. 그 중 자아실현은 가장 높은 차원의 욕구이며 인간본성의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인의 잠재력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아실현 욕구의 의미는 개인마다 다르다고 하였다. 따라서 Maslow의 욕구단계 중 개인차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아실현이다.

Rogers⁴⁾는 자아실현의 경향은 모든 형태의 삶에 공통적인 것이지만 완벽하게 자아실현을 하여 이 동기를 포기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여 자아실현이 완전히 최종단계는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아실현은 인간의 욕구 중 가장 중요한 차원의 욕구로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며 일생을 통해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인에게 있어 자아실현의 의미는 삶의 모든 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의복의 디자인을 통해서도 이러한 표현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 개성·동조와 자아실현

패션은 개성과 동조가 동시에 작용하여야만 성립된다. 사람들은 이 두 욕구를 모두 갖고 있지만 어느 쪽이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자아실현의 의미는 다르게 된다.

강혜원⁶⁾은 여자들은 유행과 개성에 똑같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낮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여 유행과 개성·동조성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의복의 동조성과 색상과 성격특성의 관계를 연구

한 Taylor와 Compton⁷⁾은 동조성이 높은 여대생이 타 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관심이 높다고 하였고 Smucker와 Creekmore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동조성이 높을수록 동료들에게 더 잘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Malowe와 Gergen⁹⁾은 집단의 압력에 쉽게 따르는 사람은 자존심이 낮다고 하였고 Drake와 Ford¹⁰⁾, 홍금희와 이은영¹¹⁾, 최선형¹²⁾ 등은 성격요인으로 자기존중이나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은 동조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강혜원¹³⁾은 내향적 성격과 사회적 안전감이 높은 사람은 의복에서 개성을 강조하고 외향적,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동조성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또한 신옥순¹³⁾은 독특성과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외모상의 개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정미실¹⁴⁾도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의복의 동조성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강경자²⁾는 자아 실현성이 높은 사람은 개성주의자이고 자아 실현성이 낮고 자기 긍정성이 낮은 사람은 의복의 동조성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집단에 소속하여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승인 받으려는 욕구는 높고 자존심이나 자기성취욕구가 낮을수록 성인여성들은 집단규범의 옷을 중시하고 반대로 소속의 욕구는 낮고 자존감, 자기실현, 미추구

의 욕구와 인지욕구가 높을수록 개성표현을 중시한다고 하였으며 기혼여성보다 미혼여성이 자아 실현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동질적인 성향을 가진 여대생 집단 내에서도 개성이나 동조성향에 따라 자아실현의 의미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개성·동조와 의복디자인 선호도

의복규범과 동조성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연구한 Horn¹⁵⁾은 의복의 규범에 있어서 여자는 개성과 동조성과의 균형을 미묘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스커트 길이, 폭, 허리선의 위치, 실루엣 등의 기본형태에 동조하면서도 옷감, 색상, 디자인 등 세부적 요소들을 다르게 함으로써 개인의 취향을 독특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Kefgen¹⁶⁾도 개성은 자신의 의복디자인에서 색상이나 옷감의 이용으로 표현된다고 하였고 Taylor와 Compton⁷⁾은 호감을 얻기 위해 의복에 동조하지만 의복의 형태와 조화에 대한 평가 때문에 동조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Boehme¹⁷⁾은 자아실현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설득하기 어렵고 디자인 지각에 있어서도 더 분석적이라고 보고 디자인에 대한 지각의 유형에 자아실현이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미경¹⁸⁾은 20대는 스포

7) Taylor, L.C. & Compton, N.H., Personality correlates of dress conform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0 (8), 653-656, 1968.

8) Smucker, B. & Creekmore, A.M., Adolescents' clothing conformity, Awareness and peer acceptan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 (2), 92-97, 1972.

9) Marlowe, D. & Gergen, K.J., Personality and Social Interaction, in G Lindzey and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3, 2nd. ed., Reading Mass : Addison-Wesley, 590-665, 1969.

10) Ford, Imogene M. & Drake, Mary Frances,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a Comparison of Two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 182-196, 1982.

11) 홍금희, 이은영, 성인여성의 성격특성과 의복행동간의 관계연구 : 연령과 직업 변인에 의한, *한국의류학회지*, 7, 1-8, 1983.

12) 최선형, 이은영, 유행선도자의 특성 연구 - 유행선도력, 사회적 성격, 의복의 동조성, 유행정보원 사용간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11 (3), 15-28, 1987.

13) 신옥순, 서봉연, 이순원, 자아정체감과 외모를 통한 자기개념 및 개성에 관한 의복, 심리학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 (2), 9-17, 1978.

14) 정미실, 강혜원, 남자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상성과의 상관연구 - 의복의 동조성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8 (1), 21-27, 1984.

15) Horn, M.J., Gurel, L.M., *The Second Skin :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1981.

16) Kefgen, M. & P. Touchie-Specht., *Indivis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New York : Macmillian Co., 1981.

17) Boehme, L.C., Persuability and visual Perception of dress design as Related to Selecte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0.

타한 스타일을, 30·40대는 드레시한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이선재¹⁹⁾는 성인여성은 곡선에 드레시한 스타일을, 여대생은 직선과 스포티한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최재춘²⁰⁾은 여고생들의 경우 스포티하고 활동적인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최승희·강경자²¹⁾도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스포티한 스타일과 Box형의 옷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Ditty²²⁾는 의복스타일 선호와 내향성-외향성, 남향성-여향성을 관련시켜 연구한 결과 내향적인 사람은 의복선호의 폭이 넓었고 외향적인 사람은 선호하는 성향이 한정된 경향을 보였다.

이인자²³⁾는 곡선을 선호하는 사람은 여성적인 특성이 있고, 스포티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은 보다 남성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였고, 이선재¹⁹⁾는 곡선적인 형태를 선호하는 여대생은 체계적이지 못하나 과시적인 성향이 높다고 하였다.

색상에 대한 개인의 기호는 의복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대체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난색계에서 한색계로 선호가 이행되는 경향이 있다. 최재춘²⁰⁾, 이미경¹⁸⁾은 연령이 낮은 여성은 채도가 높거나 난색계열의 유복성이 높은 색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문선회²⁴⁾는 착용기호색의 명도는 학력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고명도의 기호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Compton²⁵⁾은 성격특성과 의복색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어둡고 진한 색을 선호하는 반면에 사회성이 낮은 사람은 옅은 색을 선호한다고 하였고, Barret와 Eaton도 성격과 관련시켜 옅은 색, 어두운 색의 선호도를 연구한 결과 뚜렷한 색을 선택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객관적인 사건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에 뚜렷하지 않은 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주관적 관점에서 외부세계를 보므로 주로 자신의 생각이나 사고에 의해서 생활한다고 하였다²⁶⁾. 이인자²⁷⁾는 난색, 밝은 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실천적이고 과단성이 있으며 행동적인 반면에 한색, 어두운 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론적이고 사려성이 높고 사색적, 내향적이라고 하여 Compton²⁵⁾의 견해와 일치하였다. 이미경¹⁸⁾은 따뜻한 색을 선호할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탁한 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인 상황에 부정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한 것으로 보고하였다²⁸⁾. 그러나 Lopez²⁹⁾, Godfreg 그리고 Shipman의 세 연구에서는 의복에서의 색상선호는 내·외향성의 성격특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³⁰⁾. 한편 Ditty²²⁾, Khang²⁸⁾ 그리고 강혜원³¹⁾의 연구결과는 의복스타일 선호와 특정 측면의 의복관심이 내·외향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18) 이미경,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19) 이선재, 한국여성의 가치관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상관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 (1), 29-42, 1987.
- 20) 최재춘, 여학생의 의복선호도 연구, 국민대학 석사학위논문, 1982.
- 21) 최승희, 강경자, 성인여성의 자아실현과 의복디자인과의 상관관계 연구, 경상대학교부설 농업자원이용연구소보 제 24호, 153-163, 1990.
- 22) Ditty, D. D., Social-psychological aspects of clothing preferences of colleg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1962.
- 23) 이인자, 여대생의 의복디자인 기호와 흥미간의 상관연구 - Color, Line, Texture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12 (3), 23-37, 1974.
- 24) 문선회, 한국여성의 의복색채기호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25) Compton, N.H., Personal Attributes of color and design Preferences in Clothing Fabrics, *J. of Psychology*, Vol 54 (1), 191-195, 1962.
- 26)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형설출판사, 177-178, 1984.
- 27) 이인자, 여자대학생의 의복디자인 선호와 성격과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28) Kahng, Clothing interests and clothing aspirations associated with selected social-psychological factors for a group of college women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1.
- 29) Lopez, N.N., The relationship among color preferences, the use of color in dress, and extroversion and introver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58.
- 30)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264, 1984.
- 31)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349- 376, 1974.

옷감은 형태와 색채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옷감에 따라 두께, 중량, 촉감, 광택이 다르므로 질감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의복 선택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Creekmore³²⁾는 심미적인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질감에 대해 관심이 높고 특정한 의복을 상징적 의미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Matthew³³⁾는 비만 여대생과 정상적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정상적인 여대생은 자기체형이 잘 나타나 보이는 옷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미경¹⁸⁾은 부드러운 옷감과 가벼운 옷감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원만하고 자신의 신체적 상황에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가벼운 옷감과 얇은 옷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택이 없는 옷감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희·강경자²¹⁾는 미혼여성의 경우 중량이 가벼운 옷감과 부드러운 옷감을 선호할수록 현재지향적이며 비치는 옷감을 선호할수록 인간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택이 없는 옷감을 선호할수록 자기지향적이며 자아를 실현하려는 성향이 높고 인간생활에 있어서 원칙이나 가치적용에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의복의 선이나, 형태, 색상, 질감 등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성 및 동조추구자의 성향에 따라 그들의 자아실현의 의미는 디자인 요소들 통해 다르게 표현될 것으로 본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진주지역에 거주하는 여대생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1997년 5~6월 사이에 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대상자 380명 중 결과처리과정에서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301명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의복의 개성·동조 척도

의복의 개성·동조 척도는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³⁴⁾에서 사용한 문항으로 하였다. 이 척도는 각각 9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단계로 평가되었다. 개성·동조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733, .715로 나타났다. 개성·동조 각 문항의 점수분포는 9~45점 사이이다.

집단 분류는 개성·동조 문항의 점수에서 5단계의 중앙치인 3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27점을 기준 점수로 정하였다. 기준점수 이상인 사람을 각기 개성·동조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양 집단에 중복된 경우는 제외시켰다. 그 결과 개성집단은 145명, 동조 집단은 156명으로 나타났다.

2) 자아실현검사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는 Maslow의 자아실현 이론에 근거를 두어 자아실현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인을 측정하도록 제작된 김재은·이광자³⁵⁾의 자아실현 검사이다.

이 검사의 내용은 두 개씩 짝지워진 130개의 문항이 서로 대조되는 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험자는 두 개씩 짝지워져 있는 각 글 중에서 자신의 가치기준과 부합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문항은 인본주의, 실존주의, 형태심리학의 이론적 기초 위에 수립되었다.

그리고 검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요인은 크게 두 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척도 (Time Scale)와 지향척도 (Support Scale)가 그것이다. 시간척도는 시간효율성 (Time Competent)과 시간비효율성 (Time Incompetent)으로 나뉘며 지향척도는 내부지향성 (In-

32) Creekmore, A.M.,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ed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3.

33) Matthews, L.B., Fabric Preferences Perceptual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Obes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61, 177-182, 1969.

34) 강경자, 서영숙, Maslow의 기본욕구가 의복의 동조 및 개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 (4), 432-441, 1992.

35) 김재은, 이광자, 자아실현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7.

ner Directed)과 외부지향성 (other Directed)으로 나뉜다. 지향척도는 다시 요인별로 분류되어 8개의 하위 척도를 구성하며 8개의 하위척도는 한 문장이 여러 척도를 동시에 다루도록 되어 있다. 각 척도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성 (TC/TI ; Time Competent/Incompetent : 23문항)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과거지향적, 현재지향적, 미래지향적으로 구별된다. POI측정에 의하면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은 시간을 유용하고 가치있게 쓰는 사람이며 현재를 의미있게 하기 위해 과거와 미래를 통해 현재에서 충실히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중심부는 현재이며 배경은 과거와 미래인 사람이다.

(2) 지향성 (OD/ID ; Other Directed/Inner Directed : 107문항)

한 개인의 행동양식이 자신을 향해 있는지 타인을 향해 있는지를 측정한다.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의 본래 행동은 내부지향적이나 사람들의 애정·소망 등에는 민감하게 외부지향적이다.

(3) 자아실현성 (SAV ; Self Actualizing Values : 22문항)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높은 점수는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긍정하며 사는 사람이고, 낮은 점수는 부정하는 사람임을 암시한다.

(4) 실존성 (EX ; Existentiality : 23문항)

자아실현성을 보충하는 척도로서 실존성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치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융통성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원칙적용에 있어서 판단을 잘 하는지를 측정한다.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가치의 적용에 대하여 융통성이 있음을 나타내 주며, 반대로 점수가 낮으면 원리원칙이나 가치에 강하게 집착하여 강박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임을 나타낸다.

(5) 감수성 (FR ; Feeling Reactivity : 21문항)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민감한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으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낮으면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6) 자발성 (S ; Spontaneity : 16문항)

감정표현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지,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점수가 높으면 자발적으로 행동함을 나타내며, 낮은 점수는 자기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7) 자기긍정성 (SR ; Self Regard : 15문항)

한 개인이 현재의 자기를 어떠한 존재로 지각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점수가 높으면 자기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가치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물로 생각하여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낮은 점수는 자기를 무가치한 쓸모없는 인물로 생각하여 자기 가치가 낮음을 나타낸다.

(8) 자기수용성 (SA ; Self Acceptance : 25문항)

자신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점수가 높으면 자신이 약하며 결점이 많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점수가 낮으면 자신의 나약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9) 인간관 (NC ; Natures of man, Constructive : 11문항)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는지를 측정한다. 즉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악에 가깝다고 보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높은 점수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보는 것을 뜻하며 인간의 본성에 있는 선과 악, 남성과 여성,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영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양극(두 갈래)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임을 뜻한다. 낮은 점수는 인간을 소극적으로 보며, 근본적으로 선보다는 악에 가깝다고 보는 것을 뜻한다.

(10) 포용성 (C ; Capacity of Intimate Contact : 12문항)

타인과의 관계를 어떤 기대나 의무감 없이 친근하게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나타낸다. 점수가 높으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낮으면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의복디자인 선호도 검사

본 연구에 사용된 의복디자인 선호도 검사는 의복에 나타난 색채, 형태, 질감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18,19)}에서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의복의 색, 형태, 재질의 척도는 R. S. Woodworth³⁶⁾에 의하여 개발된 소비자 선호도 측정법 중, 쌍으로 비교하는 법 (Paired Comparison)과 선택법 (Choic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쌍으로 비교하는 법은 5단계 평정법을 사용하여 점수화 시켰다. 이것은 출근할 때나 외출할 때 입는 옷과 집에서 입는 평상복에서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총 58문항 중 색상선호도 문항을 제외한 총 56문항을 본 연구에 채택하였다.

(1) 의복의 형태

- ① 선은 직선과 곡선의 비교법으로 6문항이다 (그림으로 제시). 점수가 높을수록 곡선을 선호한다.
- ② 스타일은 드레시한 형과 스포티한 형의 비교법으로 5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포티한 형을 선호한다.
- ③ 윤곽선은 Bell형과 Box형의 비교법으로 5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Box형을 선호한다.

(2) 의복의 색

- ① 명도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비교법으로 5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밝은 색을 선호한다.
- ② 채도는 선명한 색과 탁한 색의 비교법으로 5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탁한 색을 선호한다.
- ③ 한난은 찬 색과 따뜻한 색의 비교법으로 5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따뜻한 색을 선호한다.

- ④ 배색은 동색 배색과 보색 배색의 비교법으로 5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색배색을 선호한다.

(3) 질감

- ① 두께는 두꺼운 것과 얇은 것의 비교법으로 4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두께가 얇은 옷을 선호한다.
- ② 중량은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의 비교법으로 4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벼운 옷을 선호한다.
- ③ 촉감은 뻣뻣한 것과 부드러운 것의 비교법으로 4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드러운 촉감의 옷을 선호한다.
- ④ 투명은 비치는 옷감과 비치지 않는 옷감의 비교법으로 4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투명하게 비치는 옷을 선호한다.
- ⑤ 광택은 광택이 있는 옷감과 광택이 없는 옷감의 비교법으로 4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광택이 없는 옷을 선호한다.

3. 자료분석

의복디자인 선호도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유의도 검증을 위해 t-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의복디자인 변인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디자인 선호도 비교

개성집단과 동조집단을 대상으로 의복의 형태, 색, 질감에 대한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의복의 형태는 선에서 두 집단간에 $P < .05$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두 집단 모두 곡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동조집단이 개성집단보다 곡선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시기의 유행경향이 Feminine한 무드를 느낄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여성적인 느낌을 주는 곡선을 두 집단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

36) Woodworth, R.S., *Experimental Psychology*,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368-392, 1938.

<표 1> 의복 디자인 선호 비교

디자인 선호도		집단		개 성 (n=145)		동 조 (n=156)		t값
		M	SD	M	SD	M	SD	
의복의 형태	선			3.056	3.226	3.211	3.857	-2.26*
	스타일			3.553	3.569	3.606	2.884	- .71
	윤곽선			3.168	2.910	3.228	2.638	- .93
의복의 색채	명도			3.557	2.899	3.477	2.879	1.20
	채도			2.650	2.626	2.909	2.365	-4.49***
	한난			3.171	2.669	3.194	2.811	- .36
	배색			2.481	2.770	2.464	2.876	.27
의복의 질감	두께			3.654	2.141	3.465	2.180	3.03**
	중량			3.569	2.113	3.425	1.882	2.50*
	촉감			3.379	2.325	3.385	2.168	- .08
	투명			2.479	2.650	2.483	2.517	- .04
	광택			3.659	2.397	3.527	2.529	1.85

***P<.001, **P<.01, *P<.05

조집단이 더 선호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을 위주로 자신의 느낌을 중시하는 개성집단보다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동조주의자들의 특성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타일과 윤곽선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들 두 집단이 유행을 발생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들의 특성

은 차이가 있지만 여대생이라는 동질적인 집단의 특성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의 색에서는 채도 (P<.001)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동조집단이 개성집단보다 더 탁한 색을 선호하였다. 이는 사회성이 높은 사람이 어둡고 진한 색을 선호한다는 Compton³⁷⁾의

<표 2> 자아실현 비교

자아실현		집단		개 성 (n=145)		동 조 (n=156)		t값
		M	SD	M	SD	M	SD	
시간성				51.007	9.877	49.346	9.631	1.48
지향성				52.179	8.958	47.647	8.701	4.45***
자아실현성				55.435	9.585	50.135	9.643	4.78***
실존성				52.290	9.619	48.795	9.891	3.11**
감수성				52.724	10.134	48.526	9.778	3.65***
자발성				54.641	9.626	51.833	9.696	2.52*
자기긍정성				54.241	11.324	49.539	12.179	3.47***
자기수용성				51.345	9.517	49.263	9.734	1.88
인간관				58.379	10.272	57.468	10.465	.76
포용성				50.296	8.685	47.051	9.267	3.14**

***P<.001, **P<.01, *P<.05

37) Compton, N. H., *ibid.*, pp. 191-195.

견해를 간접으로 지지해 준다.

의복의 질감에서는 두께 ($P<.001$), 중량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여대생이라는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도 개성집단이 동조집단보다 더 얇고 가벼운 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실현

여대생을 개성·동조 집단으로 나누어 그들의 자아실현 정도가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자아실현 하위변인의 순위를 비교해 보면 개성주의자는 인간관, 자아실현성, 자발성, 자기긍정성, 감수성, 실존성, 지향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조주의자는 인간관, 자발성, 자아실현성, 자기긍정성, 시간성, 자기수용성 순으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자아실현 하위변인별로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 본 결과 시간성과 자기수용성, 인간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그 외의 변인에서 개성집단이 동조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개성주의자는 동조주의자보다 행동양식이 자신을 향해 있어 내부지향적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대

해 민감하고 자존심이 강하여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매우 강하였다. 이는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 집단 압력에 따르기 쉽다고 한 Marlowe와 Gergen³⁸⁾의 견해를 지지해 주고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개성을 강조하고³⁹⁾ 자신이나 타인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동조성을 중시한다고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40,41)}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인간 생활에 있어 가치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융통성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데 두려움을 갖지 않는 특성과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여대생들은 동질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개성집단과 동조집단간에는 자아실현 하위변인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개성추구자가 동조추구자보다 자아실현 성향이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차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아실현이라는 Maslow⁴²⁾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의복디자인 선호에서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실현과의 상관관계

1) 의복의 형태와 자아실현

<표 3> 의복의 형태와 자아실현과의 상관계수

(개성집단 n=145, 동조집단 n=156)

자아실현	의복형태		스타일		유펙션	
	개성	동조	개성	동조	개성	동조
시간성	.162*	.013	.064	-.007	-.069	-.027
지향성	.066	.014	-.079	.267***	-.061	.080
자아실현성	.155*	-.063	-.008	.128	-.066	.187*
실존성	.025	.026	-.007	.221**	.055	-.039
감수성	-.089	.069	.005	.154*	.012	.149*
자발성	.160*	-.080	-.013	.214**	-.189*	.164*
자기긍정성	.058	-.161*	.017	.156*	-.169*	.071
자기수용성	-.029	.080	.058	.019	-.035	-.058
인간관	.145*	.075	-.090	.160*	-.060	.062
포용성	.027	.033	-.071	.304***	-.069	.079

*** $P<.001$, ** $P<.01$, * $P<.05$

38) Marlowe, D. and Gergen, K. J., *ibid*, pp. 590-665.

39) 강혜원, 전계서, pp. 349-376.

40) 강경자, 전계서, pp.1-11.

41) 정미실, 강혜원, 전계서, pp.21-27.

42) Maslow, A.H., *ibid*, 1970.

개성집단과 동조집단의 의복형태와 자아실현과의 상관계수는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에서 의복형태 중 먼저 선을 보면 개성집단의 경우 시간성, 자아실현성, 자발성, 인간관과 정적상관 ($P < .05$)을 보였다. 그러나 동조집단의 경우는 자기긍정성과 부적상관 ($P < .05$)을 나타내어 선행연구⁴³⁾에서 미혼여성의 경우와 일치하였다.

즉 의복의 형태에서 곡선을 선호할수록 개성주의자는 현재에 충실하여 시간을 유용하고 가치있게 쓰고 자아를 실현하는 가치관을 긍정하며 인간본성에 있는 선과 악,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와 같은 양극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동조주의자는 곡선을 선호할수록 자기긍정성이 낮고 곡선을 선호하지 않을수록 자기긍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곡선을 선호하지 않는 동조주의자는 자기 자신이 가치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물로 생각하여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스타일에서 개성집단은 자아실현의 어떤 변인과도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동조집단은 지향성, 포용성 ($P < .001$), 실존성, 자발성 ($P < .01$), 감수성, 자기긍정성, 인간관 ($P < .05$)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의복스타일에서 드레시한 형태보다 스포티한

형을 선호할수록 동조주의자는 행동양식이 내부지향적이고 원만한 인간관계와 인간생활에서 가치나 원칙적용에 융통성이 있고 감정표현에 있어 자발적이고, 자기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곽선에서 개성집단은 자발성, 자기긍정성 ($P < .05$)과 부적상관을 보이고 동조집단은 자아실현성, 감수성, 자발성 ($P < .05$)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Bell형 보다 Box형을 선호할수록 개성주의자는 자기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데 두려움을 갖고 있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자기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동조주의자는 자아실현 성향이 높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감정표현에 자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복형태에 미치는 자아실현의 영향은 선에서는 개성집단이, 스타일에서는 동조집단이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동조주의자와 개성주의자의 자아실현 표현은 의복형태에서 각기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복색과 자아실현과의 관계

개성집단과 동조집단의 의복색과 자아실현과의 상

<표 4> 의복색과 자아실현과의 상관계수 (개성집단 n=145, 동조집단 n=156)

자아실현	의복색 집단		명 도		채 도		한 난		배 색	
	개성	동조	개성	동조	개성	동조	개성	동조	개성	동조
시간성	.046	-.164*	.081	-.039	.009	-.002	-.146*	-.015		
지향성	.004	.022	.152*	-.055	.001	.000	-.162*	.052		
자아실현성	-.032	.033	-.069	.038	.013	-.052	-.074	-.074		
실존성	-.071	-.041	.144*	-.047	.057	-.017	-.080	.167*		
감수성	-.048	.038	-.000	.022	-.045	.032	-.054	-.092		
자발성	.086	.150*	-.001	.048	.026	.148*	-.078	.169*		
자기긍정성	-.016	-.000	.062	-.074*	.004	-.092	.021	.078		
자기수용성	.073	.042	.155*	-.145	.033	.040	-.057	.079		
인간관	.028	.112	.027	.054	.081	.056	-.029	-.057		
포용성	.003	-.007	.072	-.012	.009	.060	-.036	.052		

*** $P < .001$, ** $P < .01$, * $P < .05$

43) 최승희, 강경자, 전개서, pp.153-163.

상관계수는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에서 보면 의복의 색 중 명도에서 개성집단은 자아실현의 어떤 하위 변인과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동조집단에서는 시간성 ($p < .05$)과 부적상관을 자발성 ($p < .05$)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동조주의자는 의복 선택시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을 선호할수록 시간성이 낮아 과거지향적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자기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채도에서는 개성집단의 경우 지향성, 실존성, 자기수용성 ($p < .05$)과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동조집단의 경우 자기긍정성 ($p < .05$)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의복 선택시 탁한 색을 선호할수록 개성주의자는 행동양식이 자신을 향해 있어 내부지향적이고 가치나 원칙적용에 있어 융통성이 있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동조주의자는 탁한 색을 선호할수록 자신을 쓸모 없는 인물로 생각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난에서는 동조집단만이 자발성 ($p < .05$)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의복 선택시 따뜻한 색을 선호할수록 동조주의자는 감정표현에서 자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색에서는 개성집단의 경우 시간성, 지향성 ($p < .05$)과 부적상관을 보이고, 동조집단의 경우 실존성, 자발성 ($p < .05$)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개성

주의자는 동색배색을 선호할수록 현재지향적이고 행동양식이 내부지향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조주의자는 동색보다 보색배색을 선호할수록 가치나 원칙적용에 융통성이 있으며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성주의자와 동조주의자의 자아실현의 표현은 명도, 채도, 한난, 배색 등의 의복색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3) 의복의 질감과 자아실현과의 관계

개성, 동조집단의 의복에서 질감과 자아실현과의 상관계수는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에서 보면 의복의 질감 중 먼저 두께를 보면 개성집단은 자아실현 중 어떤 하위변인과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동조집단의 경우 자발성과 자기긍정성 ($p < .05$)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의복의 질감을 선택할 때 얇은 옷을 선호할수록 동조주의자는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량에서 개성집단은 시간성 ($p < .05$)과 정적상관을, 자기수용성 ($p < .05$)과 부적상관을 보이고 동조집단은 감수성 ($p < .05$)과 정적상관을, 자기긍정성, 인간관 ($p < .05$)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가벼운 질감을 선호할수록 개성주의자는 현재지향적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표 5> 의복의 질감과 자아실현과의 상관계수

(개성집단 n=145, 동조집단 n=156)

자아실현	의복의 질감		두께		중량		촉감		투명		광택	
	개성	동조	개성	동조	개성	동조	개성	동조	개성	동조	개성	동조
시간성	.011	.056	.164*	.102	.184*	.066	.039	.018	.046	.096		
지향성	.021	-.041	-.067	.070	.167*	-.078	.028	-.155*	.036	.179*		
자아실현성	-.008	-.080	-.016	.037	.021	-.079	.024	-.060	.058	.150*		
실존성	.016	.070	-.043	.107	.036	.015	-.070	-.056	.078	.160*		
감수성	-.029	-.005	-.096	.190*	-.006	-.143*	.015	-.009	.076	.055		
자발성	-.056	-.021*	-.002	-.026	.048	-.145*	-.018	-.045	.053	-.000		
자기긍정성	-.017	-.163*	-.066	-.159*	-.014	-.093	.150*	-.085	-.025	.045		
자기수용성	-.021	-.019	-.145*	.099	.047	.050	-.029	-.054	.021	.032		
인간관	-.012	-.000	-.002	-.151*	.191*	-.079	.036	-.066	-.143*	.064		
포용성	-.056	-.020	-.118	.063	.044	-.042	-.000	-.177*	.029	.052		

*** $P < .001$, ** $P < .01$, * $P < .05$

개성집단과 동조집단의 의복형태와 자아실현과의 상관계수는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에서 의복형태 중 먼저 선을 보면 개성집단의 경우 시간성, 자아실현성, 자발성, 인간관과 정적상관 ($P < .05$)을 보였다. 그러나 동조집단의 경우는 자기긍정성과 부적상관 ($P < .05$)을 나타내어 선행연구⁴³⁾에서 미혼여성의 경우와 일치하였다.

즉 의복의 형태에서 곡선을 선호할수록 개성주의자는 현재에 충실하여 시간을 유용하고 가치있게 쓰고 자아를 실현하는 가치관을 긍정하며 인간본성에 있는 선과 악,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와 같은 양극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동조주의자는 곡선을 선호할수록 자기긍정성이 낮고 곡선을 선호하지 않을수록 자기긍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곡선을 선호하지 않는 동조주의자는 자기 자신이 가치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물로 생각하여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스타일에서 개성집단은 자아실현의 어떤 변인과도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동조집단은 지향성, 포용성 ($P < .001$), 실존성, 자발성 ($P < .01$), 감수성, 자기긍정성, 인간관 ($P < .05$)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의복스타일에서 드레시한 형태보다 스포티한

형을 선호할수록 동조주의자는 행동양식이 내부지향적이고 원만한 인간관계와 인간생활에서 가치나 원칙적용에 융통성이 있고 감정표현에 있어 자발적이고, 자기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곽선에서 개성집단은 자발성, 자기긍정성 ($P < .05$)과 부적상관을 보이고 동조집단은 자아실현성, 감수성, 자발성 ($P < .05$)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Bell형 보다 Box형을 선호할수록 개성주의자는 자기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데 두려움을 갖고 있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자기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동조주의자는 자아실현 성향이 높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감정표현에 자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복형태에 미치는 자아실현의 영향은 선에서는 개성집단이, 스타일에서는 동조집단이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동조주의자와 개성주의자의 자아실현 표현은 의복형태에서 각각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복색과 자아실현과의 관계

개성집단과 동조집단의 의복색과 자아실현과의 상

<표 4> 의복색과 자아실현과의 상관계수

(개성집단 n=145, 동조집단 n=156)

자아실현	개성 집단		동조 집단		한 단		배 색	
	명 도	채 도	명 도	채 도	명 도	채 도	명 도	채 도
시간성	.046	-.164*	.081	-.039	.009	-.002	-.146*	-.015
지향성	.004	.022	.152*	-.055	.001	.000	-.162*	.052
자아실현성	-.032	.033	-.069	.038	.013	-.052	-.074	-.074
실존성	-.071	-.041	.144*	-.047	.057	-.017	-.080	.167*
감수성	-.048	.038	-.000	.022	-.045	.032	-.054	-.092
자발성	.086	.150*	-.001	.048	.026	.148*	-.078	.169*
자기긍정성	-.016	-.000	.062	-.074*	.004	-.092	.021	.078
자기수용성	.073	.042	.155*	-.145	.033	.040	-.057	.079
인간관	.028	.112	.027	.054	.081	.056	-.029	-.057
포용성	.003	-.007	.072	-.012	.009	.060	-.036	.052

*** $P < .001$, ** $P < .01$, * $P < .05$

43) 최승희, 강경자, 전개서, pp.153-163.

났다.

5. 의복질감과 자아실현간의 관련성을 보면 먼저 두께 즉 질감 선택시 얇은 옷을 선호할수록 동조 집단은 자발성과 자기긍정성이 낮았다. 중량에서는 가벼운 질감을 선호할수록 개성집단은 시간성이 높고 자기수용성은 낮는데 반해 동조집단은 감수성이 높고 자기긍정성과 인간관은 낮았다.

촉감에서는 부드러운 질감을 선호할수록 개성집단은 시간성, 지향성, 인간관이 높았고 동조집단은 감수성과 자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질감의 투명성에서는 비치는 질감을 선호할수록 개성집단은 자기긍정성이 높은 반면에 동조집단은 지향성, 포용성이 낮았다.

광택에서는 광택이 없는 질감을 선호할수록 개성집단은 인간관이 낮은 반면에 동조집단은 지향성, 자아실현성, 실존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개성·동조 집단의 자아실현은 의복의 디자인 선호 즉 형태나 색상, 질감 등에서 각기 다르게 표현됨으로써 디자인 제요소가 자기성취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의복디자인 선호와 자아실현간의 관련성에서 동조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자아실현의 의미는 개인마다 다르다고 본 Maslow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그러나 조사대상 및 지역이 여대생과 진주로 한정되어 이루어졌고 디자인 선호는 계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검색어 : 개성, 동조, 디자인 선호도, 자아실현.

참고문헌

- 강경자, 서영숙, Maslow의 기본욕구가 의복의 동조 및 개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 (4), 432-441, 1992.
- 강경자, 성인여성의 자아실현도가 의복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7 (3), 1-11, 1989.
-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349-376, 1974.
-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349-376, 1974.
-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264, 1984.
- 김재은, 이광자, 자아실현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7.
- 문선희, 한국여성의 의복색채기호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신옥순, 서봉연, 이순원, 자아정체감과 외모를 통한 자기개념 및 개성에 관한 의복, 심리학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 (2), 9-17, 1978.
- 이미경,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이상노, 이관용, 성격의 이론,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266-270, 1985.
- 이선재, 한국여성의 가치관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상관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 (1), 29-42, 1987.
-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형설출판사, 177-178, 1984.
- 이인자, 여대생의 의복디자인 기호와 흥미간의 상관연구 - Color, Line, Texture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12 (3), 23-37, 1974.
- 이인자, 여자대학생의 의복디자인 선호와 성격과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정미실, 강혜원, 남자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상성과의 상관연구 - 의복의 동조성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8 (1), 21-27, 1984.
- 최선형, 이은영, 유행선도자의 특성 연구 - 유행선도력, 사회적 성격, 의복의 동조성, 유행정보원 사용간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11 (3), 15-28, 1987.
- 최승희, 강경자, 성인여성의 자아실현과 의복디자인과의 상관관계 연구, 경상대학교부설 농업자원 이용연구소보 제 24호, 153-163, 1990.
- 최재춘, 여학생의 의복선호도 연구, 국민대학 석사학위논문, 1982.
- 홍금희, 이은영, 성인여성의 성격특성과 의복행동간의 관계연구 : 연령과 직업 변인에 의한, 한국의류학회지, 7, 1-8, 1983.
- Boehme, L.C., Persuability and visual Perception of

- dress design as Related to Selecte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0.
- Compton, N.H., Personal Attributes of color and design Preferences in Clothing Fabrics, *J. of Psychology*, Vol 54 (1), 191-195, 1962.
- Creekmore, A.M.,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ed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3.
- Cruchfield, R., *Independent Thought in a Conformist World*, in Farber and Wilson (eds), *Conflict and Creativity*, McGraw-Hill Book Co., New york, 1963, 225, 1963.
- Ditty, D.D., Social-psychological aspects of clothing preferences of colleg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1962.
- Ford, Imogene M. and Drake, Mary Frances,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a Comparison of Two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 182-196, 1982.
- Horn, M.J. and Gurel, L.M., *The Second Skin :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1981.
- Kahng, Clothing interests and clothing aspirations associated with selected social-psychological factors for a group of college women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1.
- Kefgen, M. and P. Touchie-Specht., *Indivis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New York : Macmillian Co., 1981.
- Lopez, N.N., The relationship among color preferences, the use of color in dress, and extroversion and introver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58.
- Marlowe, D. and Gergen, K.J., Personality and Social Interaction, in G Lindzey and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3, 2nd. ed, Reading Mass : Addison-Wesley, 590-665, 1969.
- Maslow, A.H.,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Row publishers., 1970.
- Mathews, L.B., Fabric Preferences Perceptual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Obes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61, 177-182, 1969.
- Rogers, C.R., *Client 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51.
- Smucker, B. and Creekmore, A.M., Adolescents' clothing conformity, Awareness and peer acceptan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 (2), 92-97, 1972.
- Taylor, L.C. and Compton, N.H., Personality correlates of dress conform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0 (8), 653-656, 1968.
- Woodworth, R.S., *Experimental Psychology*,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368-392, 1938.